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19년 12월)

일시	2019. 12. 19. 목. 오후 5시	장소	대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구제길, 김요수, 류한호, 박미자, 이묘숙, 이철우, 조숙경, 최선희, 최영태(9명)	
	회사	송일준 사장, 박형도 경영기획국장, 곽관주 편성제작국장, 한신구 보도국장, 안승현 기획심의부장(5명)	

■ 회의 내용

- 안승현 : -과반수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다.
- 최영태 위원장 :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 후 여섯 번째 회의인 것 같다. 그동안 광주MBC를 이끄느라 고생하신 송 사장님을 비롯해 여러 간부들께도 감사 말씀드린다.
- 송일준 사장 : -연말에 일정이 많으시고 바쁘실 텐데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올 한해는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게 금세 지나갔다. 특히 시청자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방송에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편성제작국, 보도국 등 노력을 해서 올해 사업 쪽 측면에서도 적잖은 성과가 있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뉴스데스크> 같은 것들은 최근 급격하게 시청률이 상승이 되어서 이것이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저희가 시청자위원님들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내년 1월 1일에 광주 전남지역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들에 관한 여론조사도 전격적으로 발표해서 보도할 예정이다. 올 한해 많이 도와주셔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름대로 지역에 공헌하는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오늘도 좋은 의견 많이 주시길 바란다.
- 최영태 위원장 : -똑같은 일을 해도 분위기가 좋을 때 일을 하면 훨씬 더 보람이 생기고 기분이 좋은데, MBC가 상승국면에서 위원회가 역할을 맡게 되어서 기쁘고 우리가 운이 좋은 것 같다. 더욱 열심히 하겠다. 다음 순서로는 주요 업무보고를 갖는 시간을 갖겠다. 2:54
- 곽관주 편성제작국장 : -먼저 <문화콘서트 난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나주정미소에 <난장> 제작센터를 마련했는데, 12월 6일에 오픈했다. 당일 7시에 오픈 콘서트를 했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번씩 지적하셨던 MC 부분에서 두 명의 MC를 투입해서 공연 녹화를 하는데 자이로와 신현희를 투입했다. 오늘이 두 번째 공연이다. UHD 제작 <포구만리>를 방송을 하는데 우리가 제작했던 2편을 12월 2일, 내일 저녁에 방송할 예정이다. 그리고 특집다큐 <농업이 미래다> '흙이 보낸 처방전'은 우리가 제작을 했는데 이번 주 화요일 날 8시 55분에 방송했다. 총 16부작 방송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송년특집 라디오 <살롱음악회>가 내일 오후 2시 30분에 남구에서 피아니스트 김정원 씨를 초대해 개최한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 시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을 중계차 녹화를 해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특집편성을 할 예정이다. 1월 4일에 마찬가지로 나주정미소에서 <난장 사운드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

정이다. 거기에서 ‘숨은 보석을 찾아라’ 공연 녹화가 이뤄진다. 그리고 <아시아 탭 밴드> 관련해서는 참가 10개국 담당PD 제1차 제작 워크숍이 내년 1월 9일부터 11일까지로 예정하고 있다. 내년엔 나주정미소에 이어서 광주MBC 라디오 펍스튜디오가 양림동에 오픈한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FM <정오의 희망곡>을 방송할 예정이고,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표준FM <놀라운 세시>를 방송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내일 또 2020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서 아침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신년특별생방송을 기획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년에 보고드렸던 청출어람 캠페인을 폐지하고 새로운 캠페인 <공정, 건강한 공동체의 출발점입니다> 주제로 무등산 문빈정사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 한신구 보도국장 : -12월에 군 보안사에서 5·18 관련 사진을 첫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집중보도했다. 국감 때 전남대병원에 이어서 조선대병원과 남구장장애인체육회 직원채용에 대한 특혜 부분들 보도했다. 여러 가지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는 부분들도 있고 불공정인 부분도 있고 해서 의미를 뒀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광주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계속 추적 보도를 하고 있다. 반면에 내년 7월 1일자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시작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수사와는 별개로 그 부분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보도도 했다. 지방의원 추태와 관련해 시민들과 도민들께 굉장히 많은 실망을 끼친 부분들을 집중견제 감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두환 12.12 기념 호화오찬 논란이 서울에서 보도되었고 저희도 보도를 한다. 그다음에 월요일날 재판에 불출석했던 부분까지 처리했다. 그리고 아침뉴스에 12월 9일부터 이유진 앵커가 진행을 하고 있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내년 새 주요업무로는 신년초 1월 1일자에 18개 전 선거구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지금 일부 선거구는 여론조사에 들어가 있다. 그 18개 선거구에 보다 최대한 공정성을 가지고 담보하기 위해서 중앙선관위와 같이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다. 그 부분의 자료는 저희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편성, SMT와 전체적으로 자료를 공유해서 지역여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다. 내년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다. 연중기획으로 저희가 ‘내 인생의 5·18’이라는 주제로 한 달에 두 편씩 24편을 방송할 예정이다. 그리고 특집 다큐멘터리도 촬영 중이다. AI인공지능 선도 도시 광주가 예타 면제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특집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나머지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되면서 도심이 상당히 정체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엔 본격적으로 그 부분이 가시화가 된다. 그런 부분들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예고방송이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지적 방송을 통해 개선하도록 조치하겠다.
- 박형도 경영기획국장 : -<빛고을 나눔장터> 성금전달이 있었다. 12월 3일날 용봉동에 있는 아름다운 가게 북카페에서 했다. 창사기념으로 항상 해마다 하는 행사이다. <빛고을 나눔장터>에서 모금된 수익금은 1년에 2천여만 원씩 장애인이나 난치병 어린이 돕기로 사용하고 있다. 올해는 1900여만 원을 광주은혜학교 어린이의 장애 보조기구 구입과 의료비로 지원했다. 그리고 사랑의 연탄배달이 있었는데 12월 9일 광주MBC 임직원과 나주시장, 직원 30여 명이 나주시 독거노인 2가구에 연탄 1,225장을 직접 전달했다.
- 최영태 : -지금까지 보고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질문해달라. 다음은 시청자위원님들의 의견제시 시간이다. 먼저 뉴스 부분에서 구제

길 위원님부터 말씀해달라.

- 구제길 위원 : -지난 12월 11일 수요일 방송된 광주 풍향동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뉴스가 있었다. 8천억 원대의 재개발사업을 놓고 포스코 건설이 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찰 과정에서 금품 살포 의혹이 있어 경찰에 고소를 했다는 내용 보도였다. 입찰 당시부터 광주와 경제계에서는 포스코와 롯데 두 개의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치열한 로비전이 전개되고 있다는 내용이 회자되고 있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 보니 조합원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 금품 살포 정황이 드러나 있다고 보도되었고 여기에 폭행 등 고소전이 전개되고 있다는 보도였다. 광주 경우 주택 보급률이 120%가 넘는데 여기에도 곳곳에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대부분 재개발을 하는 사업들인데 이런 불법행위는 분양가 인상과 주변 아파트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등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고소 등 짧은 뉴스로 처리하기보다는 밀착 취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특히 오는 28일에는 조합측이 시공사 선정 취소를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열기로 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밀착 취재해서 진실을 밝혀줬으면 좋겠다.
- 박미자 위원 : -요즘 2020 총선 대비해서 예비후보 등록 이후에 뉴스 내용이 예비후보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됐다. 참 반가운 상황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기존의 정치인들 말고 신인 정치인들 같은 경우 예비등록 이후로는 명함만 제공하는 걸로 되어있지 않나. 그렇다 보니 어떤 행사장을 가도 기존의 정치인들은 다 앞줄에 앉아서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신인이나 청년, 여성 후보들은 그런 기회조차도 없는 것 같았다. 똑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공영방송이다 보니 조금이라도 여성, 정치신인, 청년들이 본인의 가치나 신념, 의지를 표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길 바란다. 다행히 제가 MBC 뉴스를 몇 번 보니까 그래도 정치신인들의 인터뷰 같은 내용을 잘 실어주는 모습이 MBC는 역시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뉴스는 워낙 짧게 스쳐 지나가는 상황이니까 여성, 정치신인, 청년들이 자신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따로 기획해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 그런 기회를 넓히면 훨씬 이분들에게도 동등한 선에서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홍보의 기회를 자주 만들어 주면 좋겠다.
- 최영태 위원장 : -저도 뉴스에 대해 한 말씀 드리자면, 요즘 국회의원 선거 출마할 예비후보들의 출판기념회가 계속 열리고 있다. MBC <뉴스투데이>에서도 예비후보들 출판기념회 장면이 가끔 보도가 된다. 출판기념회 보도의 원칙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뉴스 분량과 후보자의 특징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도하는지 궁금하다. 예를 들면 12월 7일 토요일 <뉴스데스크>에는 그날 출판기념회를 했던 두 분 모두 보도가 되었다. 반면에 15일 일요일 <뉴스데스크>에는 당일 출판기념회를 두 사람이 했는데 전혀 보도가 안 되고, 그다음 8일은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신인 세 사람이 시간차로 출판기념회를 했다. 그런데 <뉴스데스크>에서는 한 사람만 소개가 되었다. 앞으로 총선보도가 본격화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박미자 위원 : -제가 이번에 관심 있게 본 프로그램이 <김낙곤의 시사분석> 프로그램이었다. 전남 F1이 무엇을 남겼나를 시청했다. 처음부터 잘못되고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건 누구나 다 같았던 것 같다. 직접취재를 했던 기자님이 패널로 나오고, 세

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고소 고발했던 담당자까지 나와서 패널로 참여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을 해줬다.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패널들의 거침없는 지적으로 인해 통쾌함을 느꼈다. 정작 시작할 때 문제점을 지적하고도 중간중간에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이런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한 책임은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과연 누가 져야 할 것인가, 이 내용이 순수하게 시민의 세금 혈세로만 총당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가, 지금이라도 구상권이라든지 국민소환제라든지 우리 패널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시민들이 스스로 해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던 토론이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적절하게 잘 진행이 된 것 같다. 그리고 두 분 패널이 전문가적인 시각 내용을 그때그때 얘기해서 이러한 방향성을 잘 짚어줬기에 토론을 보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10년 전에 그렇게 사업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하다못해 인터뷰라든지 그 사람들의 동향이라든지 또는 가능하다면 그 사람들의 소견이라든지. 이런 내용까지 있었다면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 이 사람의 판단에 대한 부분을 깊숙이 지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잘못된 사람들은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만 그래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 이요숙 위원 : -저는 <김낙곤의 시사본색>의 무대 세팅에 대한 언급을 드리고자 한다. <김낙곤의 시사본색>이 과거에 무대 세팅을 상당히 화려하게 하다가 정제된 블랙톤으로 가서 굉장히 무게감도 있고 전달력에 있어 집중력을 높이는 건 좋다. 블랙으로만 하다 보니 출연자들의 의상과 함께 얼굴이 약간 공중에 뜬 듯한 느낌에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서 그 부분이 개선이 되었다. 세트로 장식했던 모니터의 화면들이 카메라 워크에 따라서 출연자들의 어깨와 얼굴 사이에 등장을 하다 보니까 시선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게 되어 시청 시 집중력이 약간 불편하게 가는 경우가 있다. 세심한 사전 세트나, 아니면 2020년을 필두로 해서 또 다른 어떤 세트의 개선도 생각해보면 어떨까. <김낙곤의 시사본색>을 봤을 때 우연히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패널들의 시간을 시청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학자, 전문가, 정치인들이 나왔을 때보다도 정말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 어떤 식으로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고 행동하는 그것들이 어떻게 사회에 여파를 줄 수 있는가를 담당하게 정제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시사라는 것이 꼭 전문가와 정치가와 힘 있는 자들과 논하는 부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시사도 있구나라는 점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이 크게 와닿았던 것 같다. 앞으로도 <김낙곤의 시사본색>에서 좀 더 우리 일상 속에 있는 시사도 잘 발굴해서, 그리고 출연진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말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출연한다면 앞으로 더 좋은 방송으로 훨씬 많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최선희 부위원장 : -계속해서 <김낙곤의 시사본색>을 보고 있는데, 최근 12월 15일자에는 서서히 총선이 가까워지니까 다양한 인사가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 아주 이색으로 보수쪽의 대변자라고 할 만한 이정현 의원이 직접 나왔다. 그런데 출연하는 서두에 이정현 의원의 멘트 중에 여러 차례 방송을 요청해서 나오게 됐다는 말을 본인 스스로 얘기했다. 최근 <김낙곤의 시사본색>의 흐름은 토크쇼인지, 시사토크인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유연성이 많다 보니까 주로 출연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를 들어주거나 우리같이 본색으로 따지고 싶은 이야기보다는 마치 토크쇼와 같은 흐름의 방향이 있지 않은가. 지금 등록 기간이 시작이 돼서 본선의 스타트 점이는 한데 이번에 이정현 의원이 나와서 반갑고 근황을 알게 돼서 상당히 궁금했던 점을 해소하는 범위가 있었던데 반해 본인의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방송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넓은 아량으로 받아들이면 그런 것들도 잘 출연하게 했구나 할 수도 있지만 권위가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이 노크하면 언제든지 개방해주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은 자리를 마련하는구나 하는 그런 양면성을 읽을 수가 있어서 우리 생각에는 광주MBC가 주도하는 시사토크가 돼길 바란다. 그리고 ‘정치하는 엄마들’에 관한 이야기가 약 30분 정도 흘렀는데 민식이법이나 하준이법은 통과가 되었지만 그 외의 미통과된 세 개의 법안이라든지 유치원 3법 등은 상당히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의 급감을 알리고 있고 그것에 대해 더 깊숙이 들어가면 현재 출산율 50%가 여자였을 때 여자아이가 임신해서 출산하는 것까지 따지면 그리 오래 가지 않아서 인구가 아주 파격적으로 줄어드는 걸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어린이가 한국의 미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을 한번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교통법안 5개는 어떤 적용인지, 사실 최근에 김영란법이 시작을 해서 많은 법안들이 이름으로 타이틀을 걸고 가다 보니까 민식이 법은 무엇이고 하준이 법은 무엇인지, 또 유치원 3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랄지 정확하게 법안들이 개정되어가고 확정이 되었을 때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다. 어린이를 중심으로 하는 법안을 한 꼭지로 묶어서 단계적으로 잘 엮어줘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이철우 위원 : -이번 달에 세 번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방송을 보는 순간 이 프로에 대해 위원회에서 모두들 이야기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다. <김낙곤의 시사본색>의 지금까지의 흐름이 여러 가지 시사토크, 지역에 있는 여러 이슈에 대한 안내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것은 탐사보도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방송이 가져야 할 역할 중에 가장 큰 것이 철저한 비판의식 속에 지자체든 이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알려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것이 지역사회 방송이 살아갈 길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들으면 들을수록 솔직히 화가 났다.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고 불법과 거짓이 난무하는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참 바보였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MBC가 두 번이나 특집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중간에 계속 추적을 하지 않고 거기서 멈췄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도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탐사적인 보도가 다른 지역의 축제든지 아니면 현재 그렇게 사업추진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도 수면에 가라앉아있는 느낌이 든다.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사업들이 늦어졌으며, 그동안에 했던 성과들은 무엇이며, 앞으로 발전하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추적해서 광주MBC의 하나의 트레이드마크가 되는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하는 것도 좋겠다. 선출직 정치지도자들과 지자체장들에 관한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리면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더 많이 느낀 건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거기에 영합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형태, 이것들은 철저하게 언론이나, 특히 TV 방송이 비판을 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제왕적인 스타일의 지자체장은 있어서는 안 된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라남도의 F1 사업이라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개인적인 욕망과 야망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그랬을까 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밝혀진 자료 같은 걸 철저히 분석해서 특집방송 같은 걸 꾸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김요수 위원 : -이철우 교수님께서 전당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시아문화전당이 생긴 지가 꽤 됐고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동안의 예산이 어떻게 와있고 어떻게 반납이 됐고 어느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지 이것만 잘 살펴도 아시아문화전당의 역할이나 기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오매 전라도>를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소재발굴이 힘들겠구나, 날마다 새로운 소재를 찾아야 하니까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12월 13일은 빛가람 국제평화영화제에 대한 소개를 실시간으로 했는데 그런 행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많이 홍보가 안 돼서 안타까운 점이 있었다. 다행히 MBC에서 해주었는데 좀 아쉬웠던 것은 어떤 영화들이 나왔는지, 어떤 영화가 불만인지 꼬집어주는 부분이 없어 아쉬웠다. 12월 3일은 양림동에서 펼쳐진 크리스마스트리 꾸미기 경연대회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걸 홍보가 잘 되어서 그럴겠지만 많은 사람이 참석하고 그것에 대한 즐거움을 많이 느꼈다. 문화라는 것이 항상 사람들이 모이고 그게 지속돼야 문화가 된다고 생각한다. 크리스마스트리 경연대회가 처음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양림동을 살리려는 문화기획자들의 참신한 생각이 많이 반영되어서 즐기치게 양림동을 핫플레이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같은 날 김치타운에서 김장에 대한 코너가 있었고 또 곡성군의 한 마을을 찾아가서 김장을 했는데 도시형 김장과 시골에서 전통적으로 김장 담는 것을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 전통 김장을 할 때의 숨은 뜻을 많이 느끼게 했다. 그다음으로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번뜩 든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작년 이맘때쯤 다큐멘터리 콩 이야기 시리즈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다. 그 콩 프로그램은 좋은 부분이 많아서 제가 강의를 가거나 하면 이 부분을 빼서 소개도 하고 그랬다. 소재발굴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런 좋은 소재를 많이 발굴하면 좋겠다.

- 임철원 위원 :-<오매 전라도> 관련해서 소재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타지역 소재들을 많이 소개해서 다양성을 경험해볼 수 있었고 타지역의 문화를 간접체험 함으로써 우리 지역과 비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많았다. 그때 아쉬웠던 점은 관측대장 밤하늘 어벤져스 프로그램이었는데 인터뷰가 중단되는 게 있었다. 물론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이런 게 반복되면 MBC 신뢰도 전체로 번질 수 있는 문제가 된다. 사소한 거라도 꼼꼼히 챙겨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김요수 위원 : -라디오는 주로 점심식사를 하러 갈 때 듣는다. 그때 <사람이 좋다 문화가 좋다> 프로그램을 한다. 이 프로그램이 단순하게 문화 소식을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늘 집중해서 듣게 만드는 대목들이 있어 참 좋다. 광주 문화가 굉장히 풍성하다는 느낌을 듣게 한다. 며칠 전에는 17일쯤 되는데 진행자와 출연자가 뮤지컬을 흥내 내는 그런 시도들이 정보와 함께 재미를 주어 참 좋았던 대목이라 생각한다.

라디오방송을 하면 지역방송의 경우는 출연자들이 국어책 읽듯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자연스럽고 좋았던 부분이 많았다. 특히 이미란 교수가 출연했던 글쓰기 공동체 인터뷰 부분에서도 가만히 들어보면서 그 프로그램에 이끌리기도 했지만 나도 저런 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도전의식을 주기도 해서 좋았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해주시는 분이 마무리할 때 짧게 정리를 참 잘해주는 것 같다. 그래서 <사람이 좋다 문화가 좋다>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오래 진행된다면 좋겠다.

○ 최선희 부위원장 : -<라디오칼럼>이 매주 진행되는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다. <라디오칼럼> 시간이 몇 분짜리인가? 11월 27일날의 이묘숙 처장님의 광주의 창의적 미래라고 하는 내용은 광주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14년에 명명되고 그 이후로 재승인을 받고 이렇게 진행한 거다. 창의도시센터를 좀 더 활발하게 진행할만한 건립이 최근에 착공을 했다. 많은 정보를 낭랑한 목소리로 잘 전달 해주셔서 제가 3~4번 더 확인을 했는데 욕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원고량이 많다. 원고량을 3분이나 4분대로 필요에 따라서 조절을 하면 어떨까. 하시는 분마다 매번 시간에 쫓기듯이 칼럼을 하고 있다. 각자 스토리를 잘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 걸 보는데 이번에도 잘 들었지만 원고량이 많았다는 생각을 한다.

○ 김요수 위원 : -다른 방송사인데 <저널리즘 토크쇼J>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지난 11월 24일자 방송을 유심히 보았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취재하는 기자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패널들이 참여해서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대한민국 언론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고발하는데, 굉장히 까다롭고 출연자 본인들에게 심각한 부분인데도 예능프로그램처럼 유쾌하게 진행하는 모습이 아주 좋았다. 자기들의 힘든 부분도 꺼내서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들이 특히나 스스로 자책하는 부분도 보기가 좋았다. 특히 진행자가 언론의 관행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다, 이런 멘트를 늘 한다. 그 대목에서 저는 작은 감동마저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광주 언론에서도 한번 생각해볼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걸 보면서 광주 언론의 현주소에 대해서도 많이 깨닫게 됐다.

○ 이묘숙 위원 : -난장곡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난장곡간을 새로 야심 차게 준비하셨다는 내용은 11월에 보도도 됐고 홈페이지에도 알려졌다. 그런데 12월부터 난장곡간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말씀은 있었고 그 뒤에 난장곡간에 대해 조금 이슈화 되지 않아서 궁금했던 참이다. 12월 6일날 난장곡간에서 녹화가 있었다고 설명을 주셨다. 그런 부분이 스포일러라고 해서 사전에 알려지는 게 약간 걱정이 돼서 알리지 않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공간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만드실 의도였다면 그렇게 녹화했던 컷, 컷 흔히 말하면 파파라치 컷 등 이런 부분도 썸네일을 이용하거나 하셨다면 그 공간을 마련했던 의도가 충분히 발휘되었을 텐데 “했다,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멈춰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반 시청자들은 놀치기가 쉬웠던 부분이 아닐까 한다.

-라디오 아침뉴스 관련이다. 아침에 출근할 때 주로 듣는데, 출근하는 중에 아침 8시 뉴스를 듣는다. 새로 교체된 여자 아나운서가 사전에 설명 주셨는데 경력직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성이나 음색이 전혀 라디오스럽지가 않다는 느낌이 난다. 라디오는 오로지 소리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전달력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전달을 할 때도 차분한 목소리와 달리 약간 목소리가 올라가 있다 보니 듣는 사람이 긴장도를 줘야 한다. 거기에 허 짧은듯한 발음이 있다 보니까 뉴스를

듣는 사람이 긴장하게 되는 그런 희한한 현상이 나타난다. 죄송하지만 버튼만 누르면 채널이 돌아가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났는데 호흡조절도 안 돼서 원고를 읽는 게 어색했는데 요즘은 원고를 읽는 템포는 많이 좋아졌다. 발성이나 사전에 연습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라디오 관련해서는, 제가 목요일마다 재미있게 듣고 있는 게 ‘김대중’ 이야기인데 예전에 <제5공화국>이라는 유명한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다. 날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식으로 예고편에 다음주가 기대가 되게끔 해주는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무거울 수 있는 아침 출근 시간에 진지한 정보, 지역이 갖게 되는 희망적인 정치 메시지, 과거가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벌써 1년 반에서 2년이 된 것 같은데 매주 수요일마다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있어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발굴이 되고 그것들의 대처방안까지도 꾸준히 진행을 해오고 있다. 제가 궁금한 건 2019년도 MBC 본사나 광주MBC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이든지 뭔가 있어야 할 텐데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다. 그리고 2019년도 한 해 동안 MBC 임직원분들께서 너무 고생이 많으셨는데 자체적인 포상이 없다면 시청자위원회에서라도 각각 프로그램이랄지 고생했던 임직원분들께 시상하는 제도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잠시나마 제가 월권 비슷하게 생각해봤다.

- 최영태 위원장 : -아나운서 부분은 말씀하시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조속경 위원 : -급격하게 미디어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직면해서 광주MBC가 굉장히 다양한 시도와 많은 성과를 낸 한해라고 평가가 된다. 그래서 이런 일을 이루어내신 송일준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이런 변화되는 환경은 기회이지만 위기이기도 하다. 사실은 이 시점을 잘 넘겨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은 공공방송의 본질이 무엇이나, 기본이 무엇이나 하는 이 부분은 항상 튼튼하게 하고 가야지 않을까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앞서서 잠깐 보니까 2020년 기획에 인공지능에 관한 이슈가 있는 거 같은데 저는 산업 이슈를 실제적으로 다뤄주면 좋겠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진행하시는 김대중 특강을 아주 감명스럽게 듣고 있다.
- 김형순 위원 : -올 한해 시청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최영태 위원장님, 송일준 대표님, MBC 가족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 내년에는 조금 더 지역민과 함께하고 시청자위원들도 MBC의 직접 방송제작 과정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난장곡간이나 펭귄스튜디오를 직접 보면서 어울릴 수 있는 시청자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2020년도 신년초가 되면 제가 광주 와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의 하나가 광주, 전남이 반목과 갈등의 골이 너무 심해진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과연 이대로 방치를 해도 좋은 건지, 아니면 어차피 한 뿌리의 한 가족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인데 정치적 이유나 서로의 이해가 다르다고 해서 갈수록 반목이 깊어지는 걸 우리 스스로 해결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획물이나 시리즈로는 조금 하기 힘든 얘기다. 당사자들은 하기 힘들 텐데 3자들이 솔직하고 발전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MBC가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모두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
- 류한호 위원 : -근래에 와서 2019년에 MBC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졌지만 콘텐츠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에 상관없이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일단 칭찬하고

싶다. 그리고 <핑크피쉬>로 대표되는 2019년 성과와 더불어서 뉴스에서도 괄목할 성과를 거둔 거 같다. 지역사회 이슈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고 파고들어서 문제를 심층적으로 잘 바라보고 이것이 지역민의 관심을 끄는데 상당히 성공을 거둔 것으로 생각 든다. 경영의 어려움은 지상파의 한계로 더군다나 지역방송의 이중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지만 2020년에도 제작비는 줄이지 않고 다른 부분에 경영실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2019년 못지않은 프로그램 성과를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다.

-2020년 선거의 해여서 여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선거보도는 특히나 방송이 집중적으로 해야될 중요한 숙제인 것 같다. 선거보도를 한쪽으로 미루면서 일상적인 뉴스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된다. 아마 구색을 맞추다 보니 그런 식으로 시간과 아이템 배치를 하는 것 같다. 뉴스를 한번 바꿔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선거보도는 재미있어야 하고, 유익해야 하고 이중의 목표를 추구하려다 보니 어렵다. 이게 가령 흔히들 쉽게 보도하려면 그저 후보자들 뒤 따라다니면서 후보자들의 동정 보도하면 그게 제일 쉬운 보도고 그게 또 후보자들한테 관심도 얻고 후보자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일반시민 입장에서 그런 것보다는 정책선거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광주MBC가 선거 관련해서 앞으로 미래의 광주, 어려움이 많지만 미래의 광주를 이끌어 나가는 데에 필요한 정책은 뭔지 그 정책 아이템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그와 같은 정책을 개별 후보나 소속 정당에서 추진할 만한 공약으로 과연 제시하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 후보가 얼마나 신념을 가지고 있고 정당이 얼마만큼의 강력한 약속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따져보면 그야말로 유익한 선거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그것을 하는 방법으로 MBC가 독자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가령 매니패스토운동본부나 경실련이나 또 광주의 정책을 전문으로 하는 '광주로'나 이런 곳과 협의해서 의제를 설정하고 그 의제에 대해서 정당과 후보자들이 답변을 내도록 하고 그 약속을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지켜보는 이런 식으로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 최영태 위원장 :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감사드린다.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해 보직간부님들의 답변 듣겠다.
- 곽판주 편성제작국장 : -김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매 전라도> 관련한 지적 잘 받아들이겠다. 사전 기획할 때 좀 더 치밀하게 보완해서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다. 그리고 1년을 결산한 송년특집을 12월 31일날 계획하고 있는데 의욕적으로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임철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고부분은 엘티이 연결할 때의 사고였는데 저희가 많이 점검을 하는데 그런 사고가 벌어져서 앞으로 나갈 때 좀 더 체크를 해서 작은 사고로 MBC가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라디오 <사람이 좋다 문화가 좋다> 진행은 김두식 아나운서가 진행하는데 본인이 학창시절에 <맥베스> 연극 활동을 했는데 그런 게 나오면 더 잘하는 것 같다. 감사하다. 김대중 특강은 모두 40강을 해주기로 했는데 오늘 아침 20강을 했다. 기획 의도는 호남의 차세대 정치지도자의 모습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반응이 좋은 편이라 감사하다. 그리고 <라디오칼럼>은 전체 아침의 라디오 편성표를 보면 1, 2부가 <황동현의 시선집중> 방송, 5분간 칼럼, 10분간 라디오 뉴스편성, <황동현의 시선집중> 3부로 이루어지는데 그 편성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청취자들의 귀를 붙들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잘했다고 본다. <라디오칼럼>을 너무 길게 하면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더 해보도록 하겠다. 난장곡간 관련해서는 이요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난장>은 잘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두 번째 녹화이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다음에 시청자 위원회를 할 때 <난장> 녹화하는 날로 맞춰서 나주에서 회의를 하고 공연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갖고 있다. 편성제작에서도 내년에 기획으로 1월 1일부터 광주MBC 대기획 스포츠를 제작 중인데 인공지능 과학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 한 해 동안 강도 높게 회의를 하면서 힘드셨겠지만 위원님들의 지적과 질책은 저희의 오류를 바로잡고 아이디어도 얻고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었다는 고마운 말씀 드린다.

- 한신구 보도국장 : -구제길 위원님께서 재개발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해주셨다. 재개발 부분은 저희 회사에도 아파트가 쪽 둘러선 것처럼 광주에 제가 시청 출입할 때 35건 정도가 있었다. 열 몇 군데 정도 남았을 것 같다. 그런 보도도 금품이나 이런 영상이나 제보가 확보가 되면 적극적으로 취재를 했었다. 이번 계림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제보가 오지를 않았었고 YTN으로 영상이 넘어가고 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은 광천동 같은 경우 가장 큰 재개발단지인데 4~5년 동안 재개발이 안 된 부분도 있다.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암투도 있는 것 같다. 박미자 위원님께서 정치신인들에게 많은 부분을 배려하고 정치발전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12월 17일날 예비후보 등록이 됐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2분에서 3분 정도 정치 신인들, 현역 국회의원들을 제외한, 정치신인들에게 아침뉴스 시간을 드리려고 한다. 그 형식은 자신의 공약이라든가 필수적인 것은 넣고 각자를 자유롭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한다. 후보들에게 그런 내용은 일단 공지를 하고 있고 후보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후보들의 몫이다. 그런 부분으로 다음 주부터 예정이 되어있다는 보고를 드린다. 최영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항상 보도할 때 고민이 어디까지 보도를 해야 되냐, 출판기념회라든가 출마 기자회견 등 이런 것을 어디까지 보도를 해야 하는가이다. 그래도 내부적으로 확실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 아침뉴스에 낸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다. 출판기념회와 출마 기자회견 둘 중에 하나를 내는 것이다. 그래서 후보한테 그 부분을 의뢰를 해서 출판기념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출마 기자회견을 할 것이냐, 하나만 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드린다. 토요일, 일요일은 아침뉴스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에 방송을 하게 짜여 있다. 그날 두 분이 모두 다 나가지 않은 것은 출판기념회나 기자회견을 하셨기 때문에 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그리고 뉴스에서 류한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뉴스도 재미있어야 하고 총선보도는 특히 그래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재미와 유익을 같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정책선거를 이끌어달라고 주문을 하셨다. 저희도 항상 그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인력의 한계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타사 같은 경우엔 탐사보도팀이 있어서 4명 정도 구성되어있고 뉴스와는 별개로 3명 정도 따로 구성돼 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데 저희는 현실적으로 데일리 뉴스를 처리하기도 현실적으로 바쁜 부분이다. 어제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대부분의 젊은층이 유투

브를 많이 쓰고 있어서 후보들이 선거운동하는 방법이 차츰차츰 유튜브를 활용하는 쪽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도하려고 한다. 그 기획이 어제 나와서 개인적으로 그 뉴스가 참 좋았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선거의 의미를 담는 프로그램과 앞으로 정책성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을 발굴하도록 하겠다. <김낙곤의 시사본색>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다. 하나는 F1, 하나는 정치 부분인데 F1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드렸다. 사업 시작되기 10년 전에 이미 전남도에 경고를 했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흑자가 부풀려져 있고, 이런 부분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등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된 점, 그리고 그것을 못 막은 점에 대해 언론으로서의 저희 책임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책임을 인정한다. 그런 부분이 더 없어야 하는 부분인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결과적으로 아까 이철우 위원님께서 중간에 보도를 더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부분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도청이 2005년에 내려갔고 저희가 도청 출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 전남도청이 계속 있어서 저희가 전남도청에 출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도하고 반복해서 들여다보고 했을 텐데 현실적으로 2005년 이후로는 저희가 도청을 출입하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으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그리고 성역 없는 비판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 특히나 이용섭 시장이 하는 광주에 있는 어떤 사업들이든, 아니면 지금 도지사가 하는 사업들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서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문화전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아시다시피 4년 정도 넘게 전당장이 없지 않나. 그런 부분도 고민이 있어서 녹화는 이번 토요일에 한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을 스튜디오에 직접 불렀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날 녹화를 해서 다음 주 일요일날 방송을 하게 된다. 그때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정치부분에 대해서 <김낙곤의 시사본색>의 또 하나의 축인 정치부분 말씀해주셨다. 저희도 항상 정치인들을 섭외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을 불러야 할까 말까 하면서 고민했는데 여러 가지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해서 진행했더니 결과적으로 홍보방송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은 저도 받았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진행을 서투르게 했던 부분에 대해 반성을 하고 좀 더 다그치고 추궁하고 하는 부분을 더 했어야 한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련되게 질책할 수 있도록 김낙곤 사회자에게 전달하겠다. 질문을 아무리 매섭게 하더라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자기 말을 계속하는 이런 방송이 되어버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신입 아나운서 부분에 대한 지적 고맙다. TV를 많이 모니터하다 보니 라디오는 신경을 못 썼다. 그 부분을 모니터를 많이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바꾸도록 하겠다.

- 이철우 위원 : -한 가지 건의 드린다. 보도 부분에 내년의 주요업무 계획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최근의 정부의 아파트 규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런데 광주시에 아파트 건설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지 않나. 우리가 아파트 사업, 주택문제, 이런 것도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조사 보도도 계획에 넣어서 체계적으로 하셨으면 한다.
- 한신구 보도국장 :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건 민간공원 이전에는 상당히 재개발

위주로 많이 됐지만 이 민간공원 부분이 걸려있는 부분이 하나 있다. 대원칙적으로 7월 1일부터는 거기 아파트 사업자를 지정한 이유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모두 풀어줄 수는 없는 부분 아닌가. 그 부분을 토지 소유자들에게 그냥 난개발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도는 개발을 하게 하되 그 공원의 기능을 충실하게 살리자는 게 민간공원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게 가는 지에 대해 추적 보도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민간사업자들이 하는 모든 영역까지 보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고민해보겠다. 주택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방점을 찍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다.

- 박미자 위원 : -아파트를 건설할 때 허가를 내줘야만 가능하지 않나. 그럼 도시경관의 비율이나 그런 걸 따져서 몇 % 이상은 주거지가 있어야 되고 몇 % 이상은 산림녹지가 있어야 되고 등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주택지라고 해서 무조건 아파트 허가를 해주는 법이 있다. 나름대로 규제가 있지 않나. 1:05:20
- 한신구 보도국장 : -법이 있어서 그 부분에 지정된 곳들은 다 그곳에서 개발이 되고 있는 부분이 광주에선 상당히 많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젠트리피케이션처럼 외부로 나가는 분도 있겠지만 개발만 하게 되면 시세 차이 같은 이득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먼저다. 그래서 요새 광주를 보면 주민들이 조합을 이뤄서 아파트를 짓는 게 대부분이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를 무작정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
- 조숙경 위원 : -주택문제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외부인으로서 보기에 광주의 인구가 140만에서 늘어나지 않는다. 제가 광주에 온 지 7년째인데 첨단지구만 해도 아파트가 너무 들어선다. 지금도 계속 짓고 있다. 이 많은 아파트가 늘어난다는 것은 어쨌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된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아파트는 늘어나는데 인구는 정체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방송에서 역할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 한신구 보도국장 : -두 가지다. 며칠 전에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하나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구 수는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 1인 가구수가 지금 35%를 넘어서고 2040년이 되면 50% 가까이 된다는 것이다. 지금 아파트는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옛날엔 140만 인구 중에서 40만 가구였다 그러면 2040년에는 60만, 70만 가구가 된다는 것이다. 1인 가구가 느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파트 사업자들은 체산성이 있다고 보는 거다. 또 하나는 140만 인구 바운더리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전남에 출퇴근하는 인구 이 허수가 빠졌다는 것이다. 20, 30만 명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광주가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게 아파트 건설이 주로 되는 이유인 것 같다. 1:07:33
- 최영태 위원장 : -요즘 시민들 사이의 아파트 문제가 하나는 왜 이렇게 많이 짓느냐 하는 것이고 하나는 왜 갑자기 고층 아파트로 지어서 경관을 훼손하고 바람길을 막냐는 문제인데 이 부분을 <시사본색>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 한신구 보도국장 : -지금 주택을 짓는 사업자들은 광주시에 불만이 많다. 왜냐면 민간공원에 광주시의 정책이 몰려 있다 보니까 다른 대부분의 조합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는 많이 올리려고 하지 않나. 그러려면 종상향도 시켜주어야 하고 월 많이 시켜주어야 하는데 그걸 광주시가 일절 막아놨다. 토지면적에 맞게만 지으라고 한다.

○ 송일준 사장 : -저도 외지인의 시각으로 보면 광주가 도시 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한데 계속 아파트만 올라가고 있다. 일류 호텔이 없어서 부산에 아세안 정상회의를 뺏기고 있는 상황이다. 관심을 갖고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도 유익한 말씀 많이 해주셨다. 감사하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이런 말씀 드리기 창피한데 재작년 올해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저희 힘으로 노력해서는 방송외 사업, 콘텐츠 사업은 작년에 비해 성과를 냈다. 지역에서 광주MBC가 잘하고 있다, 공영방송으로 기여하고 있다 여론도 있고 말씀도 듣고 있다. 나름대로 성과도 내고 잘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잘 알다시피 서울에서 광고가 각 지역에 비례해서 나눠서 내려보내는 포지션이 크다 보니까 그것이 줄어드는 속도, 우리 자체 노력으로 커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럼에도 MBC에는 희망이 보이고 있다. 프로그램의 성과를 내고 있고 특히 뉴스의 신뢰는 회복이 돼서 광주MBC는 추세로 굳어지는 것 같다. 다른 데는 탐사보도를 할만한 기자도 있고 우리는 여건이 그렇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수의 인원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광주MBC가 잘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MBC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개선이 됐고 신뢰가 다시 돌아온 것 같다. 시사프로그램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돈을 버는 프로그램은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내년에도 5.18 40주년이고 4월 총선이 있다. 총선은 MBC, 뉴스가 좋아지는 추세를 더 강화하고 굳히기 위해 적잖은 돈을 쓰면서도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다. 저희는 적자 상황에서도 결단을 내려 하는 것이다. 내년에도 올해 못지않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올 한해 정말 진심 어린 도움이 되는 충고, 의견을 많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끝.